

# 전남교육청, '공존교실' 지원 강화한다

###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 수업' 권역별 협의회 갖고 방안 강구

전남교육청이 공부하는 학교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공존교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 수업으로 맺는 교육'이라는 뜻의 공존교실은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가운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도내 86개 중학교에 94명의 공존교실 지원강사가 배치돼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고, 교과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11·12일 이틀에 걸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공존교실 지원강사, 교과지도교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장학사 184명을 대상으로 공존교실 지원사업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존교실 지원강사와 함께 하는 협력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공존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존교실 운영학교 교사들은 학교 실정에 맞는 강사 채용을 위해 전일제 강사 또는 시간강사를 학



지난 11·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공존교실 지원강사, 교과지도교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장학사 184명을 대상으로 공존교실 지원사업 권역별 협의회가 열렸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강사 채용 업무를 대신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며, 공존교실이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정 보완할 방

침이다. 정선영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존교실의 안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조선대·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맞손

### 공동협력연구소 발전·입주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와 완도군이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해양연구소) 운영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최근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업무협약을 진행,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발전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 최한철 산학협력단장, 김준성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을 비롯해 신우철 완도군수, 강성운 부군수 등 완도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조 ▲양 기관 보유 유무형 인프라 상호협력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에 입주한 기업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교류 및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해양연구소는 해양바이오 관련 국내외 대학,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공동협력 연구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완도군에서 신지면 대곡리 부지에 총 102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3297㎡ 규모로 건립했다. 해조류 유효성분 분석 장비가 구축되는

공동 실험실과 동물세포 배양실, 미생물 배양실 등 연구·실험시설, 도서관, 회의실 등 연구지원 시설, 기업연구시설, 스타트업 공간 등이 있다.

조선대는 완도군과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위·수탁 운영계약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2년간 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 등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에 유치할 계획이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여 년간 완도군과 조선대학교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대학교의 교육시스템과 자원의 활용으로 지역의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과 해양 치유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선대학교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호남대, 중국 산둥성대학과 교류협력 논의

### 산둥대외무역직업대학·산둥경제무역직업대학 방문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처장 손완이)는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대학을 방문했다.

손완이 국제교류처장과 진춘화 국제교류협력실장은 11일 산둥대외무역직업대학을 방문, 마오쓰밍 국제교류협력처 처장과 비즈니스외국어학과 부주임 귀쥔젠, 국제교류협력처 차오루 담당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한국어학과로부터 전문대학부연결과정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협의를 논의했다.

귀쥔젠은 2013년 호남대학교 졸업생으로 모교와의 교류협력 개시에 감격을 표하며 향후 양교의 교류를 적극 추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마오쓰밍 국제교류협력처 처장은 빠른 시일내에 교류개시를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둥대외무역직업대학은 청도시 리창구에 위치한 산둥성 상무부 소속 공립 전문대로 현재 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직원 60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

손완이 국제교류처 일행은 12일에는 산둥성 웨이팡시에 위치한 산둥경제무역직업대학을 방문했다. 호남대와 산둥경제무역직업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중외합작대학공동운영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진행해왔다.

이날 손완이처장 일행은 천웨이귀 총장을 예방 후, 장장 부총장, 자오성이 국제교류처 처장, 허우젠방 회계학과장, 치나 국제교류처 부처장, 장젠핑 회계학과 부학과장, 쑤웨이 국제교류처 과장 등과 그동안 실시해 왔던 중외합작프로그램 관련 수업진행 상황, 학생편견 및 교수편견 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논의에 이어 프로그램 참가학생에게 호남대 소개와 함께 유학관련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목포대 '지역산업연구소' 개소 지역 미래산업 정책 개발 전담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가 최근 '지역산업연구소'를 개소했다.

목포대 부설연구소인 '지역산업연구소'는 대학에서 보유한 지역산업 관련 교수 및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초·응용 연구와 지역 미래산업 정책 개발 등을 전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 분야별로 전담 대응하기 위해 미래신산업, 조선해양,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문화예술관광 등 총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 간 파트너십 구축과 전략사업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지역산업연구소는 전남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의 '인재양성, 취·창업 생태계 구축,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산업연구소는 지역·산학 협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과 지방대학의 상생 공존 모델을 만들어 대학이 자율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역량을 호남 1위

# '온마을이음학교' 학생들 실력향상 돕는다

###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 '관리자 협의회' ... 학교-지역교육 지원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최근 시민소통공간 201호에서 광산구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15여 명으로 구성된 '온마을이음학교 관리자 협의회'를 열었다.

1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광산은 어디나 배움터 '나도 배' 프로젝트 ▲우리마을 문제해결사 '체인지메이커' ▲서로배움 연구모임 운영 ▲광산구 미래기술학교 운영 등 대표 프로그램들의 학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교장은 "온마을이음학교 사

업이 맞춤형 학교-지역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에 발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 향상을 이끌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추진단 김진구 단장은 "온마을이음학교 관리자 협의회가 지역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학교 적용을 돕고 지자체-민-관-학 교육 거버넌스의 협력 의식을 고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추진단은 오는 6월 '온마을이음학교 관리자 협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